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가득 싣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중한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싣고 오늘도 날아갑니다.

www.kmdp.or.kr

ISSN 2465-8367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Winter
2019 VOL. 79

Korea Marrow Donor Program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홈페이지
www.kmdp.or.kr

블로그
blog.naver.com/kmdp0311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mdp_official

페이스북
www.facebook.com/kmdp0311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을 원하신다면

①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남 · 여

② 신청장소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동자동)
수도권 지하철 1 · 4호선, 공항철도 및 경의중앙선 서울역 12번 출구
☎ (02) 737-5533 (안내 2, 기증증진팀)

③ 접수시간 : 개인인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 / 단체인 경우 사전에 전화로 협의 후 출장 신청

※ 방문 시 사전에 협회로 방문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Korea Marrow Donor Program
2019 Winter VOL. 79

04 전문가 칼럼
희망 이야기
– 순천향대학교 종양혈액내과
원종호 교수
(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사랑을 나눕니다

06 나누고 베풂으로써
삶의 여유가 생기고 풍족해집니다
– 기증자 강성호 님

08 가장 아름다운 행운, 기증의 행운
– 기증자 이종주 님

항상 고맙습니다

10 은인께 드리는 글
– 수혜자 서용진 님(가명)

12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님
– 수혜자 정소은 님(가명)

현장 STORY

14 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1팀 박기승 코디네이터

16 2019년 제18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희망을 기증하세요'

18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 조혈모세포 이식수혜자
황승택 기자

좋은 소식 전합니다

20 KMDP NEWS

2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24 조혈모세포 관련 통계

26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함께
혈액암 환우를 응원해 주세요

27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에서는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8 함께 나누는 분들

29 따뜻한 사랑을 나눠요

30 Q&A : 조혈모세포에 관한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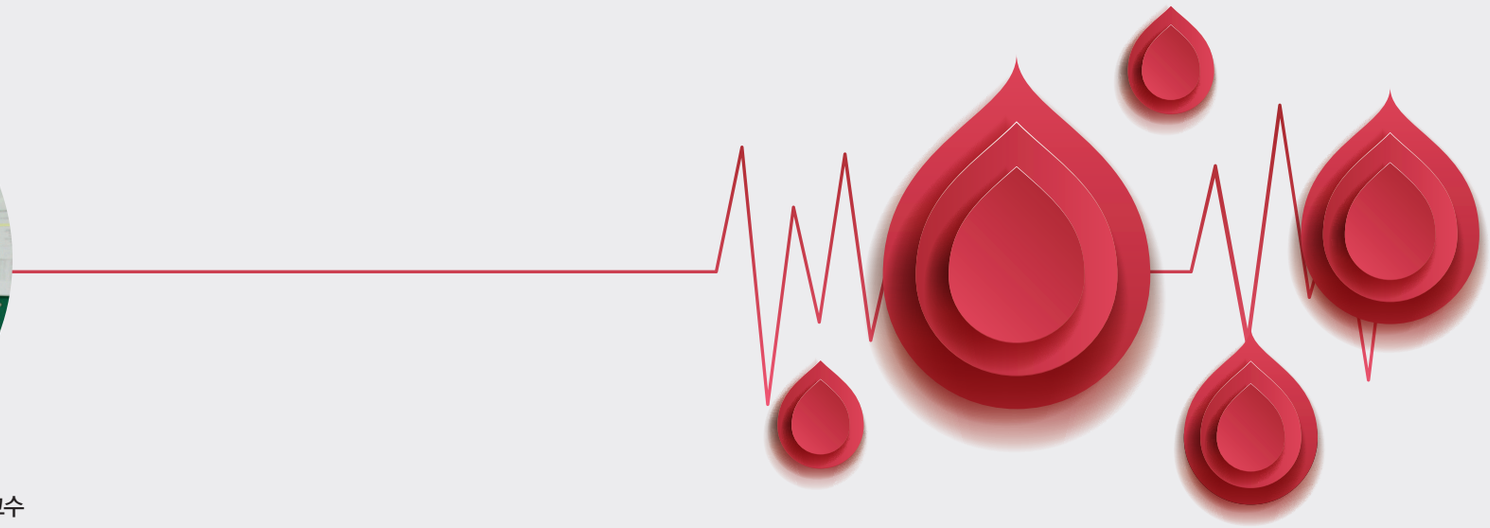
31 개인정보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사람들

2019 WINTER Vol. 79
2019 겨울 이야기(통권79호)
2019년 11월 29일 발행
발행인 민우성
편집책임 이양화
편집 박충민, 지수희
발행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TEL. 02-737-5533 FAX. 02-737-5336, 7
E-mail : kmdp@kmdp.or.kr
홈페이지 : www.kmdp.or.kr

희망 이야기

순천향대학교 종양혈액내과 원종호 교수
(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급성백혈병을 포함한 혈액암의 치료는 최근 표적 항암제를 포함한 신약의 개발과 다양한 조혈모세포 이식 기법의 발전으로 완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치료에 불응하여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28세 여자 김OO 씨는 10년 전 고등학생 시절 급성골수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이 환자는 나쁜 예후인지로 인하여 항암치료 후 관해 상태에서 친동생으로부터 골수를 기증받아 조혈모세포 이식 시행 후 잘 지내던 중 2년 만에 백혈병이 재발했다. 재발 후 항암치료를 받고 2차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받았으나 불행히도 백혈병은 다시 재발했다. 이 정도가 되면 의사도 환자도 추가적인 치료에 소극적으로 되며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 하지만 김OO 씨는 전신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했고 우리 의료진은 다시 관해 유도 항암치료를 시행한 후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현재 마지막 치료 후 5년이 지났으며 중등도의 만성이식편대숙주반응이 있으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물론 모두 이런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필자에게는 이런 경우의 환자가 몇 명 있다.

혈액암을 진단받는 환자나 가족들의 반응은 다른 일반적인 암을 진단받는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충격적이다. 아마도 유독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하고, 과거 마땅한 항암치료제가 없던 시절의 나쁜 예후가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다. 혈액암은 다른 고형암에 비해 항암제에 좋은 반응을 보이므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를 넘긴 고형암에 비해 오히려 치료가 더 잘되고 완치율도 훨씬 높다. 더군다나 항암제 치료 후 재발한 경우나 특정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하여 예후가 나쁘게 판정이 될 때도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를 완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치료법이다. 그러므로 첫 진단이나 재발을 막론하고 혈액암을 치료할 때 모든 환자의 치료 목표는 항상 '완치'다. 물론 치료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고용량의 항암제를 반복적으로 투여받고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감염, 점막염과 같은 합병증, 혈소판 감소에 동반한 출혈과 같은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끝까지 견뎌내면 완치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임상 심리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는 『마음의 습관』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5가지 지침을 통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지혜를 이야기했다. 이 중 필자에게 가장 와닿는 지침은 5번째인 '희망을 물고 늘어져라'다.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는 희망이라는 뼈다귀를 물고 늘어지는 불독 같아야 한다. 어떠한 장애물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무조건 희망의 뼈다귀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만 할 것이다.

나는 길지 않은 혈액 종양 전문의의 길을 지나오며 불같은 의지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질병과 싸운, 그래서 병을 이기고 살아남은 많은 환자와 긴 시간을 가슴 졸이며 함께한 가족을 기억한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러 환자와 새로이 진단받고 황망한 심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분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희망만이 본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슴속에 굳게 지니기를 바란다.

최초의 여인 판도라는 제우스로부터 열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와 함께 상자 하나를 받았다.
그 상자에는 인간의 모든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혹은 억제력보다 강했고
판도라는 그것을 열고 말았다.
그 순간, 저주는 온 세상으로 퍼졌고
모든 축복은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희망' 하나만은 상자 안에 남았다.
희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버텨낼 수 없다.

나누고 베풂으로써 삶의 여유가 생기고 풍족해집니다

기증자 강성호 님(30대, 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화학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뒤 현재 인천공항공사 테러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성호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10여 년 전 군 복무 중 선임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해서 어떤 건지 궁금해하던 중 헌혈의집에서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봉사활동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입대 전에는 장애인시설이나 요양시설에서 청소와 재능기부 등을 많이 했고, 군에 있을 때는 지역 재난이 있을 때마다 대민지원도 나갔죠. 최근에는 봉사활동 기회가 헌혈 외에 거의 없었는데, 이마저도 제가 사는 곳에는 헌혈의집이 없어 자주 못 하다가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한 번 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것 같아요.

기증하시기 전 혹은 기증희망등록하시기 전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등록하기 전에 군대 선임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전부였고, 헌혈과 같은데 혈액암 환자를 위해 특수한 피를 나눠주는 거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보다는 '골수 기증' 이란 말이 더 익숙했고요. '골수이식' 이라는 단어가 기증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도 '조혈모세포 기증' 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거 같습니다.

기증희망 신청하시고 연락이 온 건 얼마 만인가요?

10년 넘게 기다렸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온 것도 신기했지만 연락을 받게 된 에피소드가 더 '기적' 이라고 봐요. 오래 지나 연락처가 바뀌었었는데 다행히 집 주소는 지금 거주지로 수정되어 있었나 봐요. 협회에서 아파트 관리실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을 주셨고, 그렇게 기증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일치하는 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등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 등록했다는 사실조차 잊을 무렵이었어요. 가족하고도 일치하기 힘든 유전자인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일치한다는 게 조금은 신기했고 누군지 궁금하긴 했어요. '나랑 비슷하게 생긴 건가?' '나이는?' '성별은?' 등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상호접촉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사실을 안 후부터는 그저 환자분의 완치만 간절히 바라고 있죠.

기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결정에 망설임은 없었어요. 먼저 했던 군대 선임을 봤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는 것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주변에서 힘들다는 둥, 후유증이 많다는 둥, 멀쩡한 몸에 상처를 낸다는 둥 염려를 하셨는데 그런 반응이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죠. 사람을 만날 때는 '시간이 남아서' 누구를 만나거나 찾아뵙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는 것이고, 무언가를 나눌 땐 '여유가 있어서'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풂으로써' 오히려 삶에 여유가 생기고 풍족해지는 거라고요.

주변 분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기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의 반응들은 어땠나요?

많이 걱정하셨어요. 회사 동료, 친구, 가족 모두 후유증이 있을까 봐 특히 허리 신경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셨어요. 부모님께는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입원하는 당일에 말씀드렸는데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시려 해서 당황했네요. 다행히 잘 안심시키고 이렇게 기증할 수 있도록 건강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증 얼마 후가 직원체육대회라서 축구동호회 사람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바로 격한 운동을 할 수 없으니 곧 있을 예선전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서 그랬던 듯합니다. 하지만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이 제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시고, 좋은 일 한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뿌듯했어요. 특히 회사 팀장님은 사보에 기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농담도 하셨죠.

기증 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사전에 해야 하는 혈액샘플 채취나 건강검진, 3일간의 촉진제 주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대학병원 규모에서만 할 수 있다 보니 가까이에 병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동 및 대기 시간 등의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어려웠어요. 또 기증 때 6시간이나 걸려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팔에 멍이 들어서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도 좋은 점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일치, 환자분의 건강, 기증자의 개인적인 여유 등이 모두 맞아야 할 수 있는 선행인데, 약간의 수고와 아픔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보람 있고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환자분의 완치를 위해 협회 관계자분들과 병원 근무자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도 감사했습니다.

기증 이후에 조혈모세포 기증(골수 기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달라진 점은 솔직히 없는 거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기증 후 허리통증도 없었고, 일반헌혈보다 조금 오랫동안 헌혈하는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성분헌혈을 해보신 분이라면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기증받으시는 수혜자분께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병과 싸우시느라 많이 힘들고 지치셨겠지만 제가 기증한 조혈모세포가 잘 생착되어 빨리 회복하시고,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30년 넘게 살아오며 아파서 입원 한번 한 적 없고, 축구, 등산, 자전거 등으로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해온 제 피를 받으셨으니 누구보다 건강해지실 거라 믿어요.

많은 분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증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그런 기증희망자 혹은 기증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모르니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하기 전에는 조금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막상 하고 나니 크게 힘든 일은 없습니다. 피로감이 조금 있긴 한데 신나게 축구를 2시간 했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예요. 솔직히 촉진제 주사는 허리가 뻐근한 정도의 불편함은 있어요. 하지만 진통제 먹으면 바로 사라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잠깐의 수고와 불편함으로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용기가 생길 거예요.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힘써주시고, 고생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려요.

가장 아름다운 행운, 기증의 행운

기증자 이종주 님(40대, 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4세 남자 교사 이종주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평소 헌혈의집에서 집사람과 헌혈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던 2010년쯤 헌혈의집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보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집사람과 함께 기증 신청을 했습니다.

기증하시기 전 혹은 기증희망등록하시기 전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전에는 '골수 기증'이라는 말로 골수를 척추에서 빼내기 때문에 기증자가 힘들고 후유증이 많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증희망등록을 하면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로 명칭이 바뀌었고 추출방법도 성분헌혈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증희망 신청하시고 연락이 온 건 얼마 만인가요?
5년 전에 일치 연락을 받고 다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후 연락이 없어 내심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기증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치하는 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사실 그렇게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다른 분이 새로운 삶과 자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간이 지날수록 설레었습니다.

기증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치한다는 소식을 받은 후 기증에 대해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평소 봉사를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나 재능 면에서 부족하여 헌혈만 하고 있었는데 나로 인해 타인의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찾아온 행운이라는 생각이 저를 움직였으며 마음 한쪽에서 무언가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분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기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의 반응들은 어땠나요?
사실 주변에 말을 하지 않고 기증을 하고 싶었는데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어 자리를 비우는 이유에 대해 관련된 사람들에게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혈모세포라는 단어는 주변에서 모르고 있었으나 골수라고 이야기하니 쉽게 아시더라고요. 무섭지 않은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등 많은 질문이 있었고, 특히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취소가 가능하면 취소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기증방법을 척추에서 추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리 커다란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대단하다', '의미 있는 일이다' 등 많은 격려를 해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기증 신청 방법이나 자격에 관해 궁금해하는 분도 많으셨습니다.

기증 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방학 중 기증이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사실 제게 기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증받으시는 분에게 시간을 맞추는 게 기본이었고, 이외에는 기증하면서 별다른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증 가능 소식 전달부터 현재 몸 상태 점검, 병원 입원, 기증 현장 등 협회의 세심한 배려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증 후 관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협회에서 무척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기증 이후에 조혈모세포 기증(골수 기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지만, 생각보다 기증방법이 복잡하거나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증받으시는 수혜자분께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단한 것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어서 응원할 자격이 되는지 부끄럽습니다. 제 조그마한 도움으로 기증받으신 분의 생활이 조금 더 행복해져서 가족과 주변인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증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그런 기증희망자 혹은 기증자분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시는 주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재능 면으로 기부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교단에 서서 봉사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교육을 하면서도 막상 저 자신은 남을 위해 실질적인 봉사를 하지 못해 부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혈모세포 기증을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제게도, 기증받으신 분에게도 행운이죠. 단, 이 행운은 제가 만드는 행운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행운이 있지만, 내가 만드는 기증의 행운은 가장 아름다운 행운입니다. 함께 행운을 누리며 자신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 조혈모세포 기증을 권해드립니다.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겼으며 약 3년간 주춤했던 헌혈도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 정신이라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한 행운을 다른 분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인께 드리는 글

수혜자 서용진 님(가명)

안녕하신지요? 이렇게 글로나마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은인 덕에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얻게 된 혈액암 환자입니다.

아마도 제 상황을 조금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딸 하나를 슬하에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비록 전세지만 불편하지 않은 집에서 준중형차 한 대를 운전하며, 이렇게 쭉 살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렵사리 고학하며 공부를 오래 한 끝에 취직을 늦게 해서 결혼과 출산도 덩달아 늦어졌지만, 서두르지 않고 욕심 없이 주위와 조화롭게 사는 게 제 철학이었고요.

새로운 뉴스, 새로운 발견과 발명, 새 스마트폰의 출시, 신작 영화 개봉 일정과 같은 1~2년 후의 일들 혹은 그 이후의 미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많이 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질환의 기대 수명은 심정적으로 감당하기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가장 억울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제가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집안 어른 중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 평생 흡연하지도 않고, 음주는 삼갔으며, 운동도 가끔 하고 체중도 정상이었습니다. 이날까지 큰 질환과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우연히 병원을 찾아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더니, 점점 큰 병원으로 옮긴 끝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앓는 혈액암은 다소 희귀한 종류였고, 말기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질환 이름에 심각성을 모르고 이런 병도 있구나 했다가, 알면 알수록 슬픔과 절망감이 저와 제 가족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암세포는 급격히 불어나고 빈혈과 감염 위험은 커져만 갔죠.

완치로의 유일한 희망은 조혈모세포 이식뿐이었습니다. 가족 중에는 기증 가능한 사람이 없어서 비혈연간 이식을 서두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디네이터 선생님으로부터 은인이 검사와 기증을 수락해주셨다는 믿지 못할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저는 항암과 이식 치료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증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체력과 인내, 용기, 시간과 노력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일면식도 없는 제게 나눠주신 은인께 어떤 말로 감사함을 표현한들 부족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은인을 염려해 만류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를 은인 가족분께도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은인의 조혈모세포 기증 덕에 저는 새로운 1년 후, 2년 후, 그리고 5년 후의 완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기인 딸아이가 훗날 성장하여 맞이할 많은 일을 함께하고, 심지어 결혼식에 함께 입장하는 순간을 꿈꾸어 보기도 합니다.

항암과 이식 전 처치는 몹시 괴로운 과정이었지만,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 은인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은인께서 2일 차까지 기증에 동의해주셨다고, 정말 천사 같은 기증자를 만났다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식 받는 순간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은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치료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새롭게 허락된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순간을 간직하며 주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은인으로 인해 따뜻해진 만큼, 제 삶도 세상에 따뜻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인의 건강과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적 희망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님

수혜자 정소은 님(가명)

천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우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감사함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씩씩하던 저는 아픈 둘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는데, 18주 되던 때 아이를 보내고 죽을 만큼 하혈을 쏟아낸 후 무언가 몸의 밸런스가 깨졌는지 백혈병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를 여러 번 하고 다행히 유전자가 맞아 언니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벌써 네 번째 백혈병을 맞이했네요. 그간의 구구절절한 사연과 죽음의 고비, 감염, 생사의 갈림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할수록 제 몸은 약해졌고 백혈병 세포는 더욱 살려고 발버둥 쳐서 마지막 치료방법은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재이식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증 의사를 밝혀주신 분 중 유일하게 맞는 분이 천사님이셨습니다.

첫 발병 당시, 친언니가 입원 당일 망설임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며 팔을 걷어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나를 위해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뵌 적 없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천사님이 제 친언니처럼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유전자가 100%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 피 검사를 해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0만 명 중 한 명꼴로 맞는다는 유전자가 100% 맞는다는 검사결과를 듣고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불합격되었다는 소식에는 '나 이식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보다, 천사님의 건강이 더 걱정되어 내가 조혈모세포 재이식을 못 받을지라도, 천사님의 심장과 골수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가족 모두가 기도하고 또 기도 했습니다.

재검에도 응해주시고, 많은 면에서 배려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헌혈처럼 한다고 해도 저희 언니가 그러더군요.

"쉽지 않아. 힘들어. 오랜 시간 동안 저리고 기운 빠지고 백혈구 촉진제 맞으러 며칠 동안 병원 가고. 남이 해준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

천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쩌면 혼자 사시는 멋진 전문직 여성일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가정과 아이가 있는 분이시겠지요. 어떤 분이실지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천사님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거예요.

천사님의 종교를 알지는 못하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사님의 부모님, 천사님, 만약 가정이 있다면 남편분과 아이들까지 모두가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건강하기를 제가 죽을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게요. 저에게 주시는 조혈모세포 수의 곱절로 천사님께 축복이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제 병명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인데 림프구성 백혈병과 림프종의 특성이 있는, 저희 교수님도 치료 경험이 없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요. 혈액암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종양처럼 온몸에 생겨 많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천사님의 조혈모세포가 제 몸에 들어와 백혈병 덩어리와 마구마구 싸워서 어린 우리 아들 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지난 3~4년간 투병을 하며 젊은 시절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내 잘난 맛에 살던 모습을 반성하며,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 번의 재발로 나으면 밟히고, 나으면 밟히는, 때로는 잔인한 하나님이라 원망하기도 했지만,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고 때로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는구나를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꿈이 있다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건강해져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제게 생명을 나눠주신 천사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품고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건강해져서 다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1팀 박기승 코디네이터

안녕하세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식조정1팀에서 근무 중인 박기승 간호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기 전, 종합병원 수술실 마취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병원의 여러 부서 중 특히 폐쇄적이라 바깥과는 만날 일이 없으며, 환자분의 수술에 가장 직접적으로 간섭하면서도 환자와는 한 번의 인사도 할 수 없는 부서였지요. 간호사로서 근무하기를 꿈꿔왔던 마취과였지만 평소 활발하고 사람을 만나기 좋아하는 저와는 썩 맞지 않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대학생 시절부터 알고 있던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약간의 수고를 하면 환자에게는 새로운 삶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환자와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너무나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증희망 신청을 했고, 지금은 이곳에서 그 기증을 돕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따뜻하고 건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사시는 기증자분들을 만나며, 기증을 진행할 때마다 한 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보람이 가득 찬 일을 하고 있죠.

이 책자를 보시는 분 중에는 조혈모세포에 대해 모르시는 분,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 이미 기증을 진행하신 분, 그리고 환자분과 그 가족분까지 많은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증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혹은 기증하시면서 별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조혈모세포 기증이 너무나도 중요하며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요.

저는 기증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기증자분들에게 환자와 저희가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 혈액 한 팩이 모자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헌혈로 모이는 혈액 한 팩이 죽음의 경계에 있던 사람을 삶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만분의 1의 확률로 유전자형이 맞아야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혈모세포 한 팩은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할 수 있으니 조혈모세포 기증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중요성과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항상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따뜻한 일에 종사하며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만큼, 환자와 기증자를 위해 언제나 신경 쓰며 더 좋은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함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9년
제18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희망을 기증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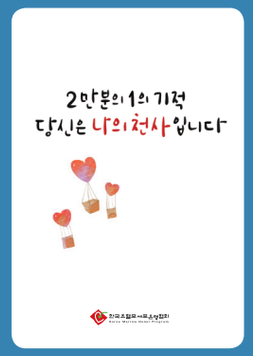
‘2019년 제18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이 9월 21일 토요일, 흰물결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서 올해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과의 생명나눔 특집 강연회 ‘희망을 기증하세요’로 꾸며졌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으며, 작년에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5천례를 돌파하는 등 혈액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분께 새 생명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분을 비롯해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에 도움을 주시는 기증희망등록 모집기관, 조혈모세포 채취센터 및 이식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후원자 등 약 350여 분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협회를 통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편지를 담은 수기집 『2만분의 1의 기적,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를 드렸습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소통테이너 오종철의 진행으로 신희영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부회장의 개회사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의 축사(서명룡 과장 대독) 후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 감사패(장)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수 등록단체인 대경대학교 RCY 동아리,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복지지평’에 감사패를 드렸으며, 조혈모세포 채취센터 건국대학교병원 혈액성분치료실 홍진영 간호사에게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5천례 달성 기념으로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대한적십자사 혈액 관리본부, (주)랩지노믹스에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2부에는 ‘세바시’ 생명나눔 특집 강연회 ‘희망을 기증하세요’가 진행됐습니다. 강연의 첫 단추는 황승택 기자의 ‘죽음을 넘어서는 글쓰기의 힘’이었습니다. 이어서 사진작가 조세현의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려면’, 배우 김명국의 ‘내 아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의 ‘유튜브에서 무조건 성공하는 비결’ 그리고 소통테이너 오종철과 가수 라마의 ‘머리가 나는 콘서트의 기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연사분은 생명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자 나눔으로 새 생명을 선물 받으신 분들이기에 참석해주신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일반 시민 여러분의 나눔에 대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새롭게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해주신 분들을 비롯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분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도움 주신 관계자분들께 이 공간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강연 전체 영상은 유튜브에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혹은 ‘세바시’로 검색하셔서 각 채널로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감상이 가능합니다.

※ 『2만분의 1의 기적,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수기집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받아보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737-5533, 안내 3 (착불 배송)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글 : 조혈모세포 이식수혜자 황승택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운 좋게 두 번이나 받은 올해 42살 황승택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두 번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암이 두 번 재발했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2015년 10월 첫 발병에 이어 2016년 12월, 2018년 1월까지 도합 세 번의 발병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2018년 4월 두 번째 이식 후 순조롭게 몸이 회복되어 저는 첫 발병 이후 45개월만인 올해 7월 회사에 방송기자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백혈병을 진단받는 순간에는 무너졌습니다. 술, 담배도 거의 하지 않고 몸 관리를 잘해왔다고 자부했기에 그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직장에서도 한창 커리어를 왕성하게 쌓아가며 많은 사람과 만나는 기자라는 삶을 살다가 주위 환경과 완전히 단절된 백혈병 환자가 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45개월간의 항암 치료와 재활기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기간 동안 제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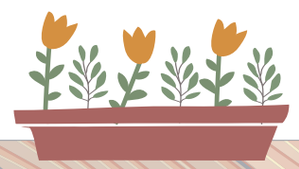
아프기 전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기사를 써서 회사와 동료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보다는 일이 먼저였고 가족에게 조금 소홀하더라도 제가 성공한다면 이를 만회할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암에 걸렸듯 질병과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무조건 현재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10년 뒤의 보상, 타인의 인정보다 제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합니다.

이런 귀중한 교훈을 얻고 '제2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게 조혈모세포를 공여해주신 두 분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자와 수여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국내 법 규정 때문에 제게 조혈모세포를 공여해주신 분들의 신상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얼굴도 모르고 인연도 없는 제게 본인의 소중한 조혈모세포를 기꺼이 공여해주신 두 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번이나 조혈모세포를 공여받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가족의 행복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다면, 인생의 2막은 타인을 더 많이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즉 제 투병생활을 기록하고 또 취재를 하며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저는, 암병동 특파원입니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의 인세 전액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조혈모세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에서 공개 강연을 요청했을 때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 풍토에서 자신의 암 투병 경력을 밝히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테지만 제 강연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해주신다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질병을 오롯이 자기관리의 실패로 생각하는 사회 인식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분들이 선뜻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은 공여자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이미 해주신 분들은 하나의 생명을 구하신 분들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해주신 분들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행이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저도 그 감사함을 평생 마음에 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KMDP NEWS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더 많은 분에게 새 생명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2019년 제38차 대한수혈학회 학술대회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제38차 대한수혈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수혈의학 분야의 석학이 한자리에 모여 수혈 및 연관 학문의 연구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혈요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 교류의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02 APBMT&ICBMT 2019,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5천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APBMT &ICBMT 2019(아시아태평양 조혈모세포 이식학회 및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KMDP에서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5천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KMDP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혈액암 환자들의 완치와 기증자분들의 예우 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03 2019년 생명나눔주간 기념식 : 보건복지부 표창 수상

9월 10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된 '2019년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에서 KMDP가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04 2019년 제18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날 '희망을 기증하세요' – 생명나눔 특집 강연회

9월 21일 토요일, 세계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날을 맞이하여 KMDP에서도 '2019년 제18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연계하여 생명나눔 특집 강연회 '희망을 기증하세요'를 진행했는데요. 조혈모세포 기증자이자 KMDP의 홍보대사 이낙준 님과, 마찬가지로 KMDP 홍보대사이자 배우 그리고 환자의 아버지 김명국 님, 황승택 님 등 5팀의 연사들이 생명나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p.16~p.17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5 2019 서울시민 희망광고 게재

서울시에서는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희망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공모에 KMDP가 당선, 제작 및 심의기간을 거쳐 9월부터 서울 일대에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모델로 홍보대사 '닥터프렌즈'(이낙준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창윤 내과 전문의)가 나서 주셨으며,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모서리 부근 및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 닥터프렌즈와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자 인터뷰(강보성 님)

KMDP의 홍보대사 '닥터프렌즈'와 함께 강보성 기증자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강보성 님께서는 공직자로서 본인의 조혈모세포 기증담을 통해 더 많은 분께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려드리고자 유튜버 '닥터프렌즈'의 진행으로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7 제10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각기 다른 '나눔'을 주제로 비영리단체 및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나눔의 방법을 알리고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KMDP도 '생명나눔'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8 푸르덴셜생명 히크만 주머니&마스크 만들기 봉사활동

KMDP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푸르덴셜생명 임직원 여러분께서 혈액암 환우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마스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약간은 어색한 손바느질이지만 주머니와 마스크가 꼭 필요한 혈액암 환자분들을 떠올리며 정성껏 만들어주셨습니다. 완성품은 KMDP에서 환자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푸르덴셜생명 및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임직원 여러분, '착한공모전' 당선팀(고려대, 대구보건대, 서울대, 성균관대 수원 · 서울캠퍼스,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KMDP 서포터즈 단원 소속 대학교(건양대 메디컬캠퍼스, 공주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순천향대, 위덕대, 을지대 성남캠퍼스, 한림성심대), RCY 경북지사(경북과학대, 경북보건대, 경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동양대, 안동과학대, 안동대), RCY 대구지사(대구과학대), RCY 대전 · 충남지사(대덕대, 대전보건대), 전남대 의과대학, 충북보건과학대 RCY 동아리, 광주보건대 호산나보건진료소, 9사단 보수대대, 아주대학교병원, 한국성서대 등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개인 및 단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문의 _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내선 11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5월~10월 활동 내용)

2019. 05.20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

2019. 05.20 대구가톨릭대학교

2019. 05.21 경주대학교

2019. 05.21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2019. 05.22 경북과학대학교

2019. 05.22 서울대학교

2019. 05.23~24 성신여자대학교

2019. 05.23~24 중앙대학교

2019. 05.24 순천향대학교

2019. 05.26 마로니에공원

2019. 05.27~28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2019. 05.28 고려대학교

2019. 05.28~29 이화여자대학교

2019. 05.29 대덕대학교

2019. 05.30 대구과학대학교

2019. 05.30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

2019. 05.30 홍익대학교

2019. 06.01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2019. 06.05 9사단 보수대대

2019. 06.05 대구보건대학교

2019. 06.06 홍대 광장무대

2019. 06.09 신촌 연세로

2019. 06.10 위덕대학교

2019. 06.30 마로니에공원

2019. 08.25 신촌 스타공원

2019. 08.30~09.01 APBMT&ICBMT

2019. 09.04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

2019. 09.05 대전보건대학교

2019. 09.10 공주대학교

2019. 09.21 2019 감사의 날

2019. 09.24 광주보건대학교

2019. 09.25 대경대학교

2019. 09.25~26 한림성심대학교

2019. 09.29 마로니에공원

2019. 10.04~06 나눔대축제

2019. 10.07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2019. 10.07 충북보건과학대학교

2019. 10.08 아주대병원

2019. 10.12 푸르덴셜생명

2019. 10.21 한국성서대학교

2019. 10.22~23 안동과학대학교

2019. 10.24 경북보건대학교

2019. 10.27 마로니에공원

2019. 10.28 동양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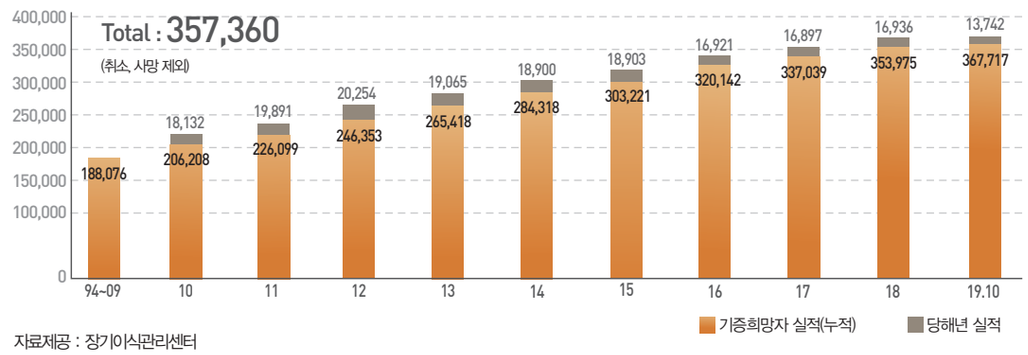
2019. 10.29 안동대학교

2019. 10.30 대구가톨릭대학교

조혈모세포 관련 통계

조혈모세포(골수) 기증희망자 등록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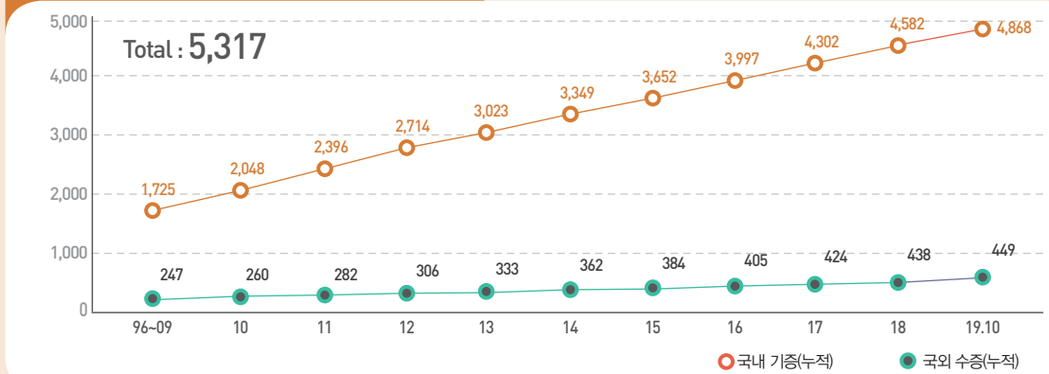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제공 : 장기이식관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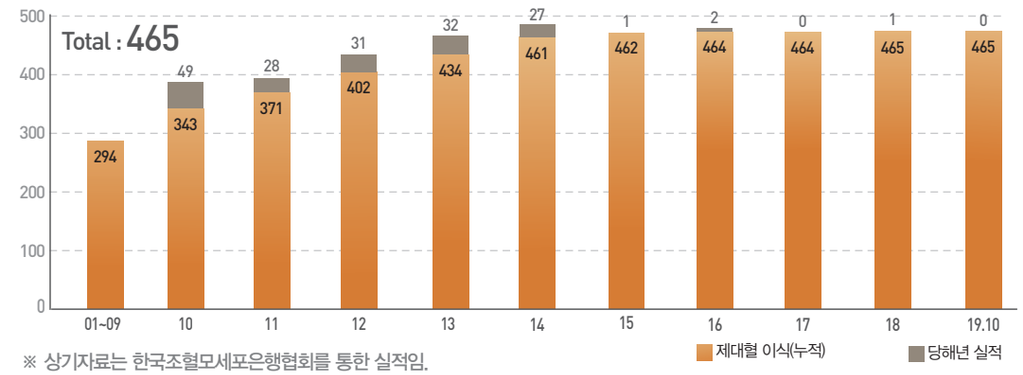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실적

(단위 : 명)



기증 제대혈 이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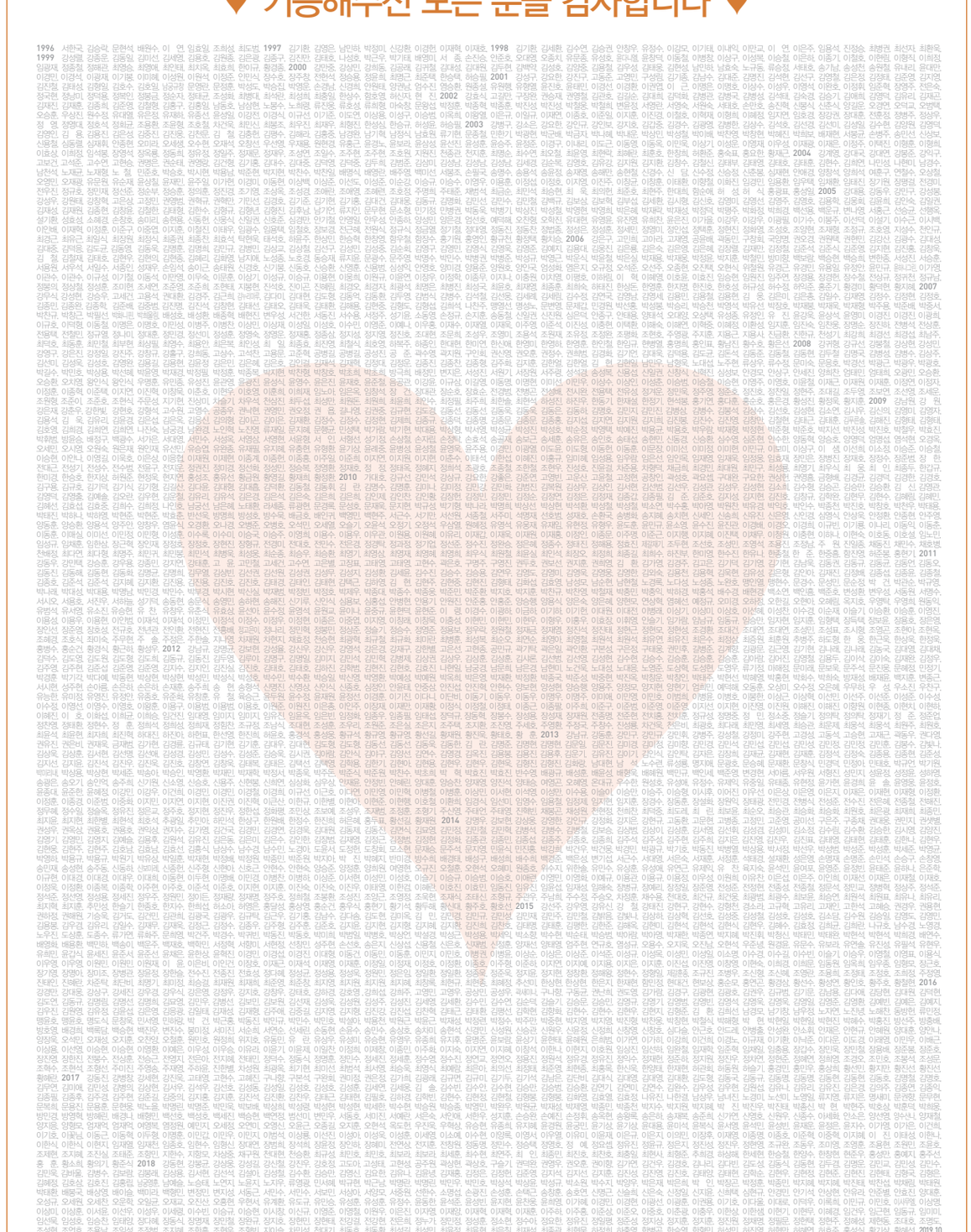
(단위 : 명)



※ 상기자료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한 실적임.

※ 제대혈은 2014. 10. 1부터 국내 공급을 중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함.

♥ 기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이후 우리 협회를 통해 실제로 기증하여 주신 분들의 성함입니다.(1996 ~ 2019. 10 현재까지)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함께 혈액암 환우를 응원해 주세요

하나. 조혈맘 인형 만들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캐릭터 조혈맘, 적혈이, 백혈이, 소판이를 인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신 인형은 소아암 환아에게 전달됩니다.

* 만들기 난이도 : ★☆☆☆☆
* 참여 후원금 : 1세트당 3만 원
* 인형을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 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둘.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중심정맥관과 외부를 연결해주는 히크만 카테터를 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히크만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신 주머니는 혈액암 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 만들기 난이도 : ★★★★☆
* 참여 후원금 : 1세트당 1만 원
* 주머니를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 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셋. 마스크 만들기

힘든 항암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소아암 환아를 위해 마스크를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신 마스크는 소아암 환아에게 무상으로 지원 됩니다.

* 만들기 난이도 : ★★★☆☆
* 참여 후원금 : 1세트당 1만 원
* 주머니를 완성해 협회로 다시 보내 주시면 VMS **자원봉사 2시간**이 인정됩니다.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안내 3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에서는

'징검다리' 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후 아직 '징검다리' 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번 가입해 보세요! 새 생명의 기쁜 나눔을 실천하신 많은 분을 만나는 이야기의 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징검다리' 는 기증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지역별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그룹(www.facebook.com/groups/1605998819677212)
'징검다리-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 을 통해 기증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개설되어 있으며, 가입 문의는 아래의 각 지역 총무 혹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연락주세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 안내

매월(3월~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공지는 페이스북 그룹(징검다리-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과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 · 경기 총무	박철희 010-2620-0079
▶ 대전 · 충청 총무	임재영 010-9421-5936
▶ 부산 · 울산 · 경남 총무	이호영 010-8889-5723

Like Comment Share

Write a comment...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대해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기업후원회원

KYOWA KIRIN
BioSewoom Inc. (주) 바이오세움
SANOFI
LabGenomics
한마음혈액원
GC 녹십자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SML Labtree
코오롱베니트(주)
(주)아림디엠
KBDCA (사) 한국혈액암협회

2. 일반후원회원

('19. 05. 01. ~ '19. 10. 31.)

후원액	회원명 (가나다 순)
3천 원	한소연
5천 원	정선애
1만 원	김민수, 김보민, 김채윤, 노분남, 박경자, 배여진, 백소연, 손영애, 양 컨, 원유빈, 윤정선, 이소영, 이윤정, 이재혁, 임종성, 최서영, 최은빛, 최은솔, 최인수, 홍이준, 익 명
2만 원	김수아, 김정용, 김진웅, 박태준, 양광열, 이대우
3만 원	김상현, 김영범, 김지윤, 이기환, 최현규
5만 원	박후근, 오희정, 이수현
6만 원	김정환, 지성문화제책사
30만 원	배영란

3. 정기후원회원

('19. 05. 01. ~ '19. 10. 31.)

월정기후원액	회원명 (가나다 순)
1천 원	강슬기, 강행경, 김미란, 김은진, 손승완, 손진화, 유현철, 이은지
2천 원	박상실, 박세림, 박수경, 오덕교, 유승수, 이상헌, 이언옥, 이용섭, 임명희, 호인걸
3천 원	곽영태, 김선정, 김수동, 김영자, 김지연, 박진솔, 양철호, 이광선, 이태찬, 이형희, 전도석, 홍유선
5천 원	강동우, 강용래, 강원구, 강형석, 고현아, 김대중, 김미소, 김미현, 김민지, 김순영, 김예례, 김은숙, 김은실, 김은혜, 김재영, 김지훈, 김진관, 김창범, 김 희, 박미라, 박설화, 박시원, 박윤희, 박천우, 박철희, 박태진, 박형민, 백소연, 사공희주, 성진기, 신미란, 오현숙, 원용식, 원형식, 유영철, 윤현미, 이금주, 이동호, 이상기, 이수경, 이수현, 이은화, 이정호, 이지영, 이하슬민, 이하승, 이현아, 장경호, 장영석, 정달영, 정성미, 정진오, 조성빈, 조정희, 조흠채, 차종철, 차형덕, 최강빈, 최사빈, 최승현, 최연정, 최유니, 최윤철, 최은진, 하세린, 한순욱, 함경지, 허미경, 홍경석, 황왕연, 황원철, 황은선, 황정환, 황지원, 그린피엔티(주)
6천 원	권정미
7천 원	정은장
1만 원	강득록, 강인보, 고영일, 고현종, 공미아, 공지현, 권명순, 권정도, 김규환, 김도희, 김동휘, 김민정, 김병주, 김병한, 김보현, 김붕규, 김상우, 김성중, 김세진, 김소라, 김영재, 김유성, 김은경, 김은아, 김인숙, 김재근, 김정수, 김정현, 김진우, 김태헌, 김태현, 김학기, 김현엽, 김혜민, 김혜정, 노규동, 노영림, 류길환, 문변영, 민병옥, 민주영, 박상현, 박석환, 박세용, 박승노, 박안나, 박이용, 박인걸, 박인태, 박찬영, 박춘명, 박혁철, 박혜정, 방극희, 배원선, 백승진, 설화순, 성주현, 손은숙, 송병덕, 송종필, 송지섭, 송척호, 신명준, 안진혁, 안효섭, 양병관, 어해숙, 오수현, 오해인, 우영택, 유번림, 육전수, 윤미라, 윤미정, 윤지용, 음공관, 이미란, 이민욱, 이민주, 이민호, 이상민, 이상환, 이서현, 이석영, 이수나, 이영재, 이영재B, 이영호, 이용수, 이은진, 이재석, 이지연, 이지혜, 이창휘, 이한나, 이혜연, 이혜정, 이화영, 이효석, 임선묵, 임선영, 전성대, 정계숙, 정구현, 정기업, 정기운, 정승혁, 정영권, 정영숙, 정정선, 정정숙, 정진영, 정혜레나, 조규섭, 조동형, 조한승, 주영애, 차선옥, 차종주, 채은석, 최미월, 최상필, 최언화, 최용혁, 한성심, 한성호, 한송희, 한연숙, 한영숙, 한원배, 한윤탁, 함정은, 허란경, 현정희, 현 진, 홍지은, 홍혜경, 황대만, 황 용, 엠앤에프코리아㈜
1만 1천 원	김현맥, 이종무
1만 2천 원	임보나
1만 5천 원	문정숙, 박소라, 송진솔, 오지연, 임한삼
1만 6천 원	정희선
2만 원	고유리, 고윤석, 공성진, 김경심, 김주성, 김충만, 노영경, 박금란, 서태호, 신용호, 신용환, 양수진, 엄소현, 오흥범, 이유진, 이재수, 이재호, 정승섭, 정승섭, 조항민, 최도레, 한보석, 홍민지, 좋은나무교회
3만 원	김범준, 김상철, 김지현, 문준호, 문형곤, 박혜란, 배인귀, 서동진, 신진경, 이경희, 이동훈, 이지연, 이지연B, 이태권, 이혜연, 임성빈, 임재영, 최소정, 최승관, 최우석, 최윤혜
5만 원	김병국, 김수정, 김화원, 박봉태, 박영재, 이경숙, 이혁중, 장효식, 황유성
10만 원	김종명, 최관호, 오피스퀵앤화물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여러분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요하는 백혈병, 혈액암 환자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여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사업체 및 독지가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원 성취 기부

□ **기증자님, 감사합니다! 기부**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기꺼이 조혈모세포를 나누어 주신 기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 **꼭, 건강해지겠습니다! 기부**
조혈모세포 이식 후 완치를 약속하며 우리들의 영웅인 기증자분들의 예우가 보다 개선되길 바랍니다.

생애 첫 기부

□ **첫 월급, 내 마음의 재테크**
사회인으로 느끼는 가장 첫 기쁨이자 보람인 첫 월급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더 특별하게 기념하겠습니다.

□ **첫 걸음, 결혼기념 기부**
여러분들께 우리 두 사람이 약속드립니다. 평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합니다. 하객들께서 배풀어주신 사랑 중 일부를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 **첫 아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기부**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백일 그리고 첫 돌을 맞아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우리은행	004-649426-13-001	국민은행	827-25-0014-731	신한은행	140-003-278130	농협	047-17-002467	우체국	010017-01-013591	기업은행	148-033105-04-011

※ 입금하신 분의 성명 또는 단체명을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회원 가입신청서

※ 우리 협회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36호에 의거 '공익성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등록되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작성 → 신청서 협회로 발송 (e-mail : KMDP@kmdp.or.kr / FAX 02-737-5336, 7 / 우편) → 전화통화 본인확인 → 등록완료

■ 회원 정보(필수기재사항)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 출금이체 신청(필수기재사항)

계좌 정보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명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예금주 연락처		예금주와의 관계	
후원 금액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 기타(원)		
출 금 일	□ 10일 □ 25일		

■ 기관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

성 명 (단체명)	선택사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선택사항

■ 기관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

기관명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고유번호	105-82-09113	수납요금종류	후원금
대표자	민우성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길 17, 2층		
전화번호	02-737-5533(114) 기증증진팀	메일	kmdp@kmdp.or.kr	팩스	02-737-5336,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아인티피에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아림디엠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협회 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기념품 등) DM 발송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DM 발송 서비스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DM 발송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 기부금은 법인세법 24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록 관련 업무에 활용 목적
· 수집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 폐기 요청 시까지 보관 : 정보 폐기 후 폐기에 관한 기록 1년간 보관
· 신청자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해당 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는 것을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5개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2)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전국 헌혈의집)
3)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4) 생명나눔실천본부
5)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위의 5개 기관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을 하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모든 기증희망자의 정보를 통합 · 관리합니다. 기증 신청은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유전자검사용 혈액샘플 3mL만 채혈하면 완료됩니다. 후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혈액암 환자가 나타나서 기증을 하게 되면 2개의 이식조정기관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혹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중 한 곳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은 어디서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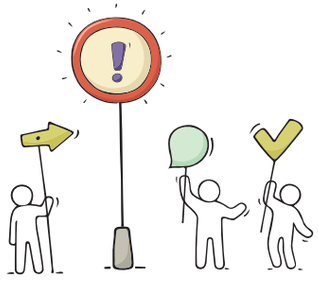
조혈모세포 기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3차병원에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간 입원해서 진행합니다. 3차병원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이 해당하며, 기증자분의 편의에 맞춰 병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증자와 수혜자(환자)는 반드시 서로 다른 병원입니다. 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자 및 수혜자는 서로를 알 수 없으며 알아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Q. 조혈모세포 기증(이식)이 필요한 질환은 무엇인가요?

조혈모세포 기증(이식)이 필요한 질환

1) 백혈병 :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등
2) 재생불량성빈혈 : 판코니빈혈, 다이아몬드–블랙팬빈혈 등
3) 악성림프종 : 호지킨병, 비호지킨 림프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성골수종 등
4) 선천성대사장애질환 : 고셔씨병 등
5) 기타 질환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과 같은 난치성 혈액종양은 조혈(造血) 과정 중에 발생한 성장의 장애나 세포의 변이로 발병합니다. 이러한 이상 조혈모세포를 항암제, 방사선 등의 고강도 조치로 소멸시킨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정맥도관으로 이식하는 것을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꼭 알려주세요!

기증희망등록 이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기증희망자님과 유전자(HLA)형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연락드릴 수 있답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꼭 변경해주세요.
(단,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자만 가능)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www.kmdp.or.kr 접속 → 개인정보변경 신청 클릭 → 변경내용 기재 → 확인

전화로 변경하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내선 112)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기부해주세요!

수혈로 인한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백혈병 및 혈액질환 환자들은 조혈기능 저하, 혈소판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과정에서 수혈이 꼭 필요합니다. 기부해주신 헌혈증은 지원규정에 따라 혈액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분들께 전달드립니다.

헌혈증 기부 문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내선 114)

보내실 곳
(0433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2길 17, 2층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앞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본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 환자 투병기, 조혈모세포 이식 및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교양, 사회교육, 수필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의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택된 수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